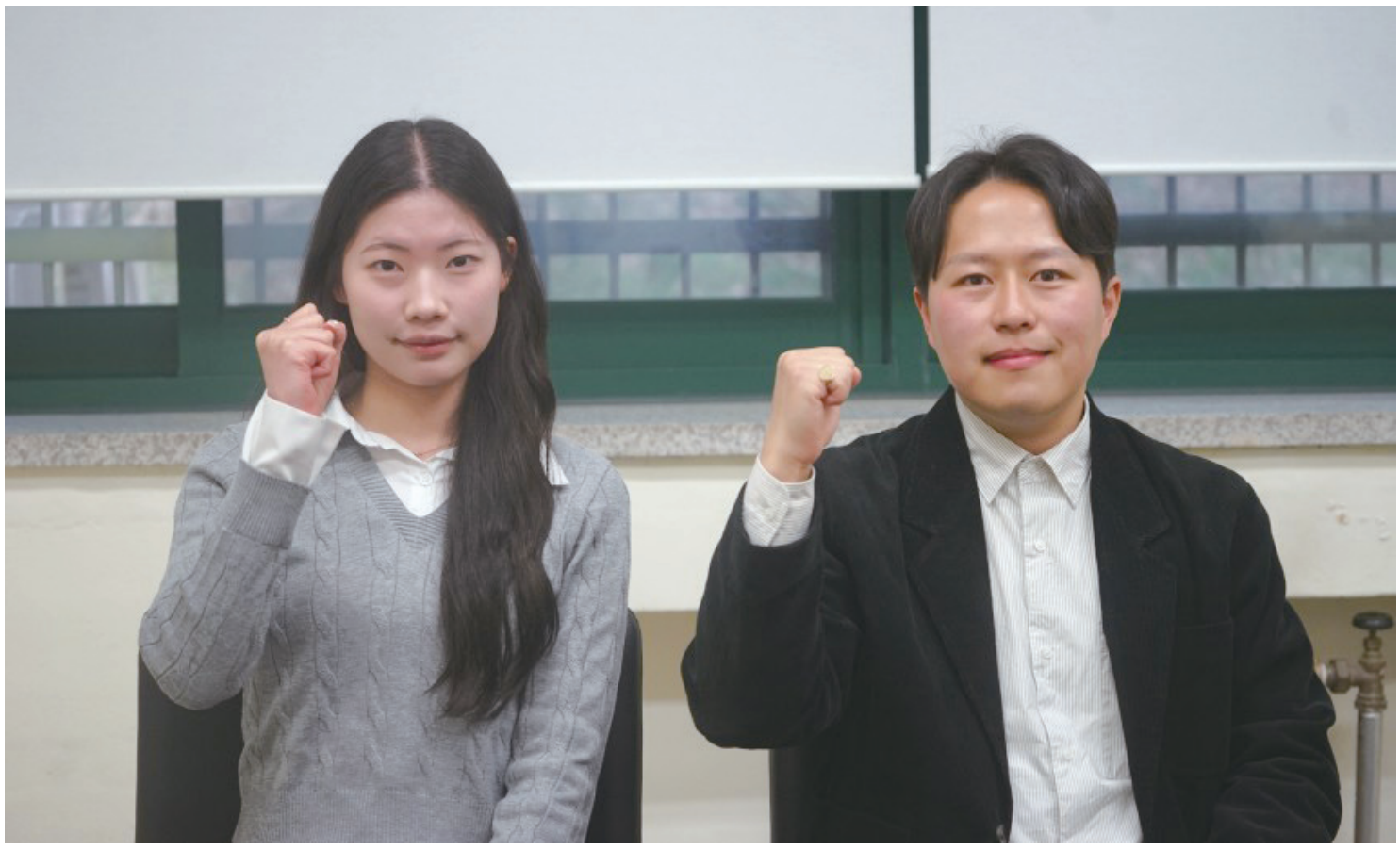
학점포기제, 전 교과목으로 확대 '성과'
다전공 지침 마련 · 교양 절대평가 확대는 과제로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총학 공약점검 – 국제캠퍼스


총학은 "더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가졌기에 학교가 변화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대학주보 DB)

임기 종료를 두 달 앞둔 국제캠 총학생회(총학)의 공약을 점검했다. 단순 공약 이행률보다는 ▲학점지우개 도입 ▲다전공 의무이수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주요 공약을 위주로 점검했다. 정재우(포스트모던음악학 2020) 총학생회장과 박서연(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23) 부총학생회장을 만나 지난 8개월간 가장 의미 있었던 일과 아쉬웠던 점, 차기 총학에 남기고 싶은 과제를 들었다.

학점지우개, 필수과목까지 확장 신청은 7학기부터

정 회장은 임기 중 달성한 공약 중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 '학점지우개'를 꼽았다. 양캠 총학은 5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이 필수과목을 제외하고 최대 6학점까지 이미 받은 성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3월부터 이어진 대학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학기부터 일반학과 기준 7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은 전공·교양 필수과목을 포함한 전 교과목에서 졸업 전까지 최대 6학점을 포기할 수 있게 됐다.

양캠 총학이 공약을 내걸 당시에는 교육과정 개편으로 학점포기 대상이 폐지돼 다시 들을 수 없는 과목 등으로 제한됐다. 총학은 학생들이 성적 부담을 덜고 새로운 분야의 수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자는 취지로 공약을 내걸었다.

대학본부와의 협의에서 양캠 총학은 재학생 3,822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제시했다. 정 회장은 "공식 면담 외에도 담당 부서와 자주 만나 학생들이 어떤 사정으로 학점포기를 원하는지 설명한 것이 도움이 됐다"며 "서로의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합의점을 찾아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당초 공약보다 대상 과목은 넓어졌고 신청 시기는 두 학기 늦어졌다. 정 회장은 "5학기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까지 지키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캠 총학과 대학본부가 함께 협의한 끝에 전공필수 과목까지 대상이 확대됐다"며 "더 많은 학우들이 관심을 가졌기에 학교가 변화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전공 의무 이수 첫해 가이드라인 마련은 과제로

다전공 의무 이수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이행하지 못했다. 올해부터 제도 적용을 받는 신·편입생은 다전공·부전공·마이크로디그리 가운데 하나를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대학은 학과별 다전공 선발 상한을 입학 정원의 30%에서 50%로 높였으나, 학생이 지원할 때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희망 학과에 따라 다르다.

정 회장은 "출마를 준비할 당시 다전공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침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취임 후에는 총장에게 여러 차례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고 교육부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융합교육을 확대하려는 대학의 방침에 대학 평가와 재정 지원 문제까지 얽힌 상황에서 당초 요구를 유지하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대학이 다전공 선발 상한을 높였지만 일부 학과는 지원자가 몰릴 것을 고려해 별도의 선발 요건을 둔 것으로 봤다. 그는 "제도를 처음 겪는 학생들의 불안을 덜어주는 것도 대학본부와 총학의 역할이다"라며 "남은 임기 동안 26학번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예인 섭외에 쏠린 관심 학생이 만드는 대동제의 부재

정 회장은 대동제를 학생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역설적으로 연예인을 섭외해야 한다는 것이 정 회장이 축제를 준비하며 느낀 고민이었다. 정 회장은 "초청 가수 없이 학생 공연만으로 무대를 꾸리면 관객도 공연 동아리 관계자에 머물기 쉽다"며 "학생 참여를 하기 위해서 아이러니하게 불러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가수를 불렀는지가 대학 간 비교의 기준이 되면서 총학도 섭외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각자 준비한 개인기를 선보이던 예전 축제들을 떠올리며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즐기는 대동제의 의미가 옅어져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한데 모여 줄다리기를 하던 축제가 그립다고 해서 지금의 학생들에게 예전과 같은 참여를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가을 축제에서는 공연을 보러 온 학생과 부스를 찾은 학생이 한자리에서 축제를 즐길 방법도 고민했다. 대운동장 공사로 노천극장에 공연 무대를 마련하면서 주차장에 모인 부스와 노천극장의 물리적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공연장을 럭비장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정문에서 걸어가기에는 거리가 있었다. 이에 총학은 주차장에 테이블과 중계 스크린을 설치해 부스를 찾은 학생들도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정 회장은 "버스 정차 위치까지 바꿔 학생들이 걸어서 오갈 수 있게 했지만 운동장에서처럼 지나가던 학생이 자연스럽게 공연을 보던 분위기까지 살리기는 어려웠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교양 절대평가 확대 협의 내용은 차기 총학에

정 회장은 이행에 있어 가장 아쉬운 공약으로 교양교육 절대평가 확대를 꼽았다. 양캠 총학은 필수교양과 배분이수 과목으로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했다. 지난 3월 국제캠 보궐선거 정책공청회에서도 양캠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의견 차로 절대평가 확대가 무산된 전례를 어떻게 넘어설지 질문에 당시 정 후보자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와 협력해 공약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임 후 정 회장은 후마니타스칼리지 전·현직 부학장을 만나 교양교육 개선안을 전달하고 이메일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제안에 긍정적인 답도 받았지만, 후마니타스칼리지의 조직 개편과 인사 변동이 겹치면서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과 충분히 협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결국 의사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부재하다 보니 변화를 확정 짓는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후마니타스칼리지와 어떤 의견을 주고받았고 어디서 협의가 멈췄는지 정리해 차기 총학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대학 차원이나 아니면 학생 사회 차원에서 우리가 필요한 과제를 제기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라고 말했다.